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 (1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7.(화) 10:00~12:0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2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13.(월) 10:00~14:00, 이음센터 커뮤니티룸 2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의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진행 되었으며 1, 2차 모두 모든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자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후 토론하는 방식의 전수검토제도로 시행되었다.

<1차 서류심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무용가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공모에도 적지 않은 지원자들이 몰려 꽤기 넘치는 젊은 무용가들이 품고 있는 뜨거운 창작의 열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본 심의에 임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의 성과라는 표피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의 향후 창작 작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본 지원 사업의 취지는, 이른바 최종 결과물인 작품의 완성도와 안무가로서의 검증이라기 보다 창작 과정을 통해 선정된(1차) 개인의 예술적 역량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안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갈고 닦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예술작품 제작과정의 시스템 지원을 통한 차세대 안무가 발굴인 만큼, 참가 지원 무용가가 지원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참신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우선시했다.

1차 서류 심의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을 합의한 이후 심의위원 각자에게 전달받은 지원 신청 서류들을 검토, 17명의 지원자 중 9명을 선정, 1차 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우선적으로 심의에 고려하였다.

1. 신청 무용가의 이전 작업과의 연계성
2. 무용작품 제작 분야의 전문성
3. 기획의도의 참신성과 현실적 구현 가능성 여부
4. 세부 사항 (예산 집행 등)의 구체성
5. 다른 작업, 혹은 안무가와와의 차별성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근거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9명의 차세대 안무가 후보군 명단을 작성했다. 반면, 지원 사업에 대한 주제의식이 모호하다거나 안무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개념과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2차 PT/인터뷰 심의 및 총평>

이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의 2차 인터뷰 심의는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직접 만든 발표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발표를 듣고, 심의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각각의 지원자들(9명)의 개별 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안무가로서의 소견을 들으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 및 개개인이 지닌 개성적인 안무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차세대 안무가들의 국제적 감각과 기성 안무가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개성이 돋보이는 지점이 발견되어 흥미로웠다.

심사위원들은 본 사업의 특성에 대한 지원자들의 이해도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원자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감안하였다. 이는 본 사업이, 단계별 지원이라는 점 그리고 다소나마 무용 창작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우려의 마음으로 2차 인터뷰 심의에 임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1차 서류심의를 통해 선정된 9명의 안무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6명의 최종선정자를 결정하였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신청자들이 두 번째 제출한 작품 준비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현과 그 방법론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비슷한 작품주제일지라도 안무 접근 작업 방식이 달랐고, 현장성 강한 기존의 공연예술에서 벗어나 영상 작업과 병합하여, 안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젊은 안무자들의 시도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최근 우리 문화예술계의 화두인 저작권과 움직임의 관계성, 몸의 역사성 탐구와 함께 다양한 연령에 대한 움직임 리서치, 그리고 영상편집의 경험을 근간으로 맵핑 작업을 통한 구체적 공간의 재인식을 목표로 하는 등 단계별 발전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정 스포츠의 움직임을 연구해 춤으로 치환시키고자 하는 이색적인 작업 플랜도 눈길을 모았다. 특히, 자연과 공간, 몸과 사물에 대한 관계를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로 구현하겠다는 작업자들은 이미 공연된 기존 작품들과 비슷하고도 보편적인 주제였지만 안무가의 의도가 명확하고 작업 진행 과정 속의 변화에 대한 기대로 수용하고자 의견들이 모아졌다.

다만 몇몇 안무가들은 창작 작업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 제시가 부족하거나, 움직임의 변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작품화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례들은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지원사업의 규정상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6명의 지원자들에게 안무 역량의 향상과 성장이 엿보이는 작업을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아쉽게도 이번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몇 안무자들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보내며 아울러 또 다른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한다.